

“금리 인상기, 싼 이자 찾아라” 변동 vs 고정 주담대 저울질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에
변동형-고정형 금리격차 좁아져
한은, 변동형 추가상승 시사에
고정형 주담대 선택 차주 늘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와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서 새로 주담대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낮은 금리를 보고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했던 기존 차주들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지를 저울질 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23일 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4.42~6.795%로, 9월 말보다 하단이 0.07%포인트(p), 상단은 0.03%p 올랐다.

이는 변동금리 주요 지표인 코픽스(CO 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3.18%에서 3.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43%로 0.25%p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4.62~6.993%로, 9월 말보다 상·하단이 0.28%p씩 오히려 하락했다.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525%에서 4.283%로 내린 영향이다.

이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와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 격차도 좁아지고 있다. 9월 말 고정형 주담대 금리차이는 0.508%p까지 벌어졌지만 이달 들어 0.198%p로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코픽스 등 변동형 상품인 단기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변동금리의 상승폭이 고정금리보다

커진 탓이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상 3~5년간 금리가 고정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신 초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변동형은 통상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돼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되지만 초기 금리는 낮은 편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정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차주도 다시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담대에서 고정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전월(31.9%)보다 3.4%p 상승했다. 고정형 비중이 상승한 것은 10개월 만이다.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를 우려한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고정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무조건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현재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는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는 데다, 내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변동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높은 시점에 장기간 대출금리를 고정할 경우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데다 향후 추가 인상도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담대 금리는 과거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3~5년 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수준에서 5년 또는 10년간 금리를 고정하기보다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하나금융그룹, 누적 순익 3.6조 ‘실적 전조’

3분기 누적 순익 5.6%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연간 9490억
누적 수수료수익 2.1조, 30% 늘어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3조 6000억원이 넘는 누적 순이익을 거두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수료 이익 확대와 수익구조 다변화에 힘입어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가운데, 연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도 역대 최대인 949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62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1909억원) 증가했다. 3분기당기순이익은 1조2214억원으로, 올해 매 분기 1조2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에는 자산관리(WM)와 투자

은행(IB)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이익 확대가 주효했다.

하나금융의 3분기 누적 수수료이익은 2조14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핵심이익에서 수수료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19.6%에서 올해 22.3%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이자이익은 7조4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한 핵심이익은 9조6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1조1953억원) 늘었다.

하나금융은 실적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도 확대한다. 이사회는 2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1165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분기 배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

사주 6990억원을 포함한 연간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규모는 총 949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7541억원보다 25.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2%, 총자산이익률(ROA)은 0.71%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정치는 15.45%로 집계됐다.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3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1824억원)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1조1946억원이다.

하나은행의 누적 수수료이익은 87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904억원) 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퇴직연금과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익 확대와 외환 관련 이익 증가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나유리 기자



BNK부산은행 경영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서는 지역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산관리·기업금융·투자금융 등 핵심 분야의 금융전문가 육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조직 경쟁력도 제고한다.

BNK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모

든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상품과 서비스, 업무 전반에 걸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주 BNK부산은행장은 “지난 59년간 부산은행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고객과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금융과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민, 91% 정신건강 중요… 관리 36% 그쳐

KB금융, 2026 한국 웰니스 보고서
‘수면’ 건강관심 분야 2년 연속 1위
‘스트레스 관리’ 52%로 2위 올라
평균 수면 2년새 6.5→6.3시간 감소

한국인의 건강관리 관심이 신체 건강에서 정신 건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수면시간은 줄어드는 등 건강관리 인식과 실천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그룹은 25일 한국인의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 행태, 새로운 건강관리 트렌드를 분석한 ‘2026 한국 웰니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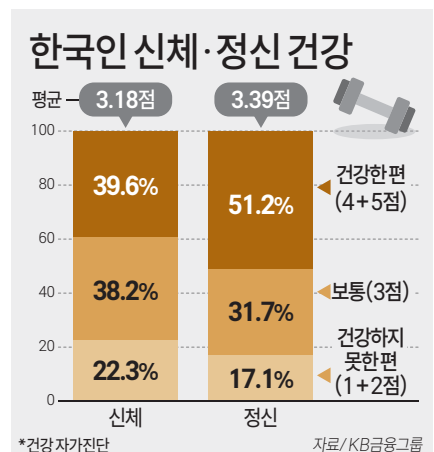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관리 관심 분야에서 ‘수면’이 54.0%로 2024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스 관리’는 51.9%로 2년 전보다 5.3%포인트(p) 상승하며 2위에 올랐다. 반면 ‘식단관리’는 44.3%로 2.7%p 하락해 3위를 기록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제 관리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90.7%가 정신 건강을 웰니스의 주요 영역으로 꼽았지만, 실제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마음 돌봄을 시도한 경험 이 있다는 응답도 26.3%에 불과했다.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과 달리 실제 수면시간은 감소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6.5시간에서 올해 6.3시간으로 줄었다. 하루 7시간 이상자는 응답자 비율도 41.6%로 2년 전보다 8.8%p 감소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잠들기 직전 휴대폰 사용’(45.9%)을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목했다.

운동 목적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소 등 ‘정서적 완기’를 위해 운동한다는 응답은 34.8%로 2년 전보다 13.3%p 증가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각각 14.9%p, 17.6%p 늘었다. 운동 방식에서는 러닝·조깅·등산 등 야외 활동이 38.5%로 4.8%p 증가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웰



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응답자의 59.9%가 웰에이징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지만 실제 관리하고 있다는 비율은 29.8%에 머물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도 확산하고 있다. 응답자의 52.4%가 건강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6.5%는 주 3회 이상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의료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6.2%였다. Z세대에서는 55.5%로 더 높았다. 특히 정서·심리 상담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 12.6%에서 Z세대 37.1%로 높아졌다.

비만치료제로 주목받는 위고비와 삭센다가 대표적인 GLP-1의 인지도는 78.0%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3%였다. Z세대의 이용 경험률은 16.5%로 베이비부머 세대(2.9%)보다 높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까지 아우르는 삶 전체의 건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인의 웰니스 지형 변화를 이해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나유리 기자

BNK부산은행

지속가능 성장 논의 59주년 창립기념식

BNK부산은행이 ‘59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23일 BNK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59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BNK부산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방향을 논의했다.

BNK부산은행은 향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공고히하고, 부산과 동남권의 산업적 특성을 살린 해양·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금융 분야에서는 선박금융을 넘어 항만·조선·해운 등으로 금융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금융 분야에